

# 韓國의 工業化와 輸出構造의 轉換

黃 南 逸\*

- I. 序 言
- II.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貿易構造
  - 1. 外國援助와 貿易構造
  - 2. 經濟開發計劃과 貿易構造
- 3. 貿易商品構造 및 地域構造
- 4. 貿易構造轉換과 工業化政策
- III. SITC分類에 의한 成長寄與度 分析
- IV. 結 言

## I. 序 言

우리나라의 貿易構造는 1962年부터 始作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을 거쳐 第2次 計劃이 積極的으로 追進되면서부터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으며 貿易構造變化와 함께 貿易의 量的增加는 우리나라 經濟가 高度成長을 可能케 한 原動力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高度成長期에 있어서의 貿易構造變化는 輸入代替와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輸出指向型 高度成長政策은 우리나라 經濟가 貿易에 크게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게 透導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貿易은 지난 1953年부터 1961年까지 輸出이 3천 9백 6십만달러에서 4천 9십만달러로 盡增하였고 輸入은 3억 4천 5백만달러에서 3억 1천 6백만달러로 減少하였으며, 1962年부터 1979년까지는 輸出이 5천만달러에서 150억 6천만달러, 輸入은 同期間에 4억 2천만달러에서 203억 4천만달러로 急增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貿易은 1953年부터 1961年까지가 沈滯狀態였으며 1962年 이후부터가 成長에 따른 貿易構造變化의 時期라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輸出指向型成長政策에 의하여 크게 變化한 輸出構造를 經濟開發計劃에 따른 輸出構造變化, 輸出商品構造와 輸出地域構造의 變化 貿易構造變化에 따른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問顧點 및 特徵등을 살펴보고 그것을 數學的으로 分析하여 各部門의 輸出이 全體輸出增加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考察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產業構造 特히 輸出產業構造의 轉換方向을 모색하는 것을 研究의 目的으로 한다. 分析期間은 1953年부터 1979년까지의 26年間이지만 貿易이

\*本研究所研究員, 商經大 助教授

海外援助에 依存하여 展開되었던 1953年부터 1961年까지는 援助에 의한 貿易構造變化를 그 概觀的인 說明에 그치고 자세한 分析은 貿易構造變化의 時期라 할 수 있는 1962年부터 1979年까지의 17年間으로 한다.

## II.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貿易構造

### 1. 外國援助와 貿易構造

1945年當時의 우리나라 經濟는 오랜 植民地支配에 依하여 全面적으로 日本經濟에 從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經濟的 基盤은 解放과 同時に 崩壞되었고 國土가 南과 北으로 分斷됨에 따라 北韓에 偏在하고 있었던 重工業, 電力, 木材등을 一時에 잃게 되었다.

따라서 1948年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기까지의 美軍政에 의한 우리나라 經濟는 長期的인 開發計劃이 實施되지 않고 美國의 援助에 依存하게 되었다.

1953年以後의 外國援助는 1957년의 3억8천3백만달러를 最高額으로 하여 점점 減少하게 되나, 1953年부터 1961年까지의 外國援助總額은 22억8천2백만달러로 同期間의 輸入總額 31억 달러의 73.6%에 이르고 있다.

外援에 依한 輸入은 糧穀을 中心으로 한 消費財가 大部分이었으며, 우리나라가 切實히 要望했던 工業機資材와 機械設備等 施設財의 導入은 거의 없었다. 즉, 美軍政은 우리나라에 美國商品의 販賣와 原料資源을 獨占하기 為한 政策을 實施하여 貿易에 있어서도 原料와 機械設備代身에 消費財輸入에 置重했던 것이다.<sup>1)</sup>

같은 期間의 우리나라 經濟活動은 外援의 영향을 받아 消費財產業이 發達함으로써 第3次產業을 中心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같은 現像은 貿易構造面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表 1에서 1953年부터 1959年까지의 外援收入의 財貨別 構成比를 보며는 消費財가 75.1%였고 投資財는 22.5%에 불과했다.

이와같은 形態의 外援은 國民의 消費性向을 높이기 하고 國內工業發達의 沈滯를 가져오기 했을 뿐만 아니라 剩餘農產物(PL480)의 導入은 農業生產性마저 低下하게 하였으며 紡織業과 捷精業等 단순 製造業만 擴張시킨 結果를 가져왔다.<sup>2)</sup> 또 이러한 外援은 商業部門의 奇形的 膨脹現像을 招來하여 產業構造上의 後進性을 脫皮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表 2에서 보듯이 1953年부터 1961年까지의 貿易은 輸出 및 輸入이 크게 沈滯狀態였고, 貿易收支 역시 크게 變하지 않고 있으며 貿易依存度도 1953年的 28.3%에서 1961年에는 16.8%

1) 亞細亞問題研究所編, 「韓國經濟成長論」1968 p.15.

2) 上揭書 p.29.

&lt;表 1&gt;

外援의 財產別 構成比

年 度	援助總額(00만달러)	消費財(%)	投資財(%)	用 役(%)
1953	194.2	78.5	1.5	—
54	153.9	83.2	14.5	2.3
55	236.7	58.3	40.1	1.6
56	326.7	72.5	25.4	2.1
57	382.9	73.5	24.2	2.3
58	321.1	70.5	26.3	3.2
59	222.9	69.4	25.5	5.1
평 균	262.6	75.1	22.5	2.4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編 「韓國經濟의 100년」 1971, p.72.

&lt;表 2&gt;

우리나라의 貿易水準 1953—1961

(단위 : 100만달러)

年 度	GNP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輸出依存度	輸入依存度	貿易使存度
1953	1,361	39.6	345.4	-305.8	2.9%	25.4	28.3%
54	1,467	24.2	243.3	-219.1	1.6	16.9	18.5
55	1,414	18.0	341.4	-323.4	1.3	24.1	25.4
56	1,459	24.6	386.1	-361.5	1.7	25.2	26.9
57	1,672	22.2	442.2	-420.0	1.3	26.4	27.7
58	1,897	16.5	378.2	-361.7	0.9	19.9	20.8
59	1,980	19.8	303.8	-284.0	1.0	15.3	16.3
1960	1,996	32.8	343.5	-310.7	1.6	17.2	18.8
61	2,124	40.9	316.1	-275.2	1.9	14.9	16.8

자료 : 韓銀, 「經濟 통계 년보」, 1975.

", 「국민소득년보」, 1973.

로 低下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의 沈滯現像是 輸出에 對한 關心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貿易收支의 赤字를 外國援助로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sup>

結局 1953年부터 1961年까지의 우리 나라 貿易은 沈滯狀態였으며 1次產品인 原料를 輸出하는 한편 各種의 消費工業製品을 輸入하던 것이 基本形態였다.<sup>4)</sup>

## 2. 經濟開發計劃과 貿易構造

1962年부터 始作된 第 1 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에는 電力, 石炭 等 에너지 供給源의 確保, 基幹產業의 擴充<sup>5)</sup> 經濟下部構造(Infra-structure)의 發展<sup>6)</sup> 輸入代替 및 輸出擴大에 依한 國際收支

3) 上揭書 p.87.

4) 全禮鎔著, 「韓國의 經濟發展」, 永信文化社, 1967, p.143.

5) 白求勲著, 「韓國의 工業化와 經濟發展」, (金子敬生譯), 新評論, 1975, p.54에 의하면 基幹產業을 세 펜트, 鐵鋼, 壓延, 製管, 肥料 등으로 定義하고 있다.

6) 經濟下部構造라는 것은 洪水管制, 多目的壩, 電力, 運輸通信, 工業團地, 農業開發, 都市開發, 住宅教育, 保健衛生, 水道, 道路, 科學技術開發 등 經濟的 社會的 間接資本이 포함되어 있다.

改善, 産業構造部門間隔差縮少 등을目標로 하는政策이實施되었다.

그리하여 1962年부터 1966년까지의 年平均 GNP成長率은 7.8%였고 輸出은 政府主導의 強力한 輸出促進政策과 低賃金의 產盤위에서 飛躍的伸張을 이룩하여 年平均 46.4%를 시현했다.

1967年부터 始作된 第2次計劃期間에는 第1次計劃의 成果를 基礎로 하여 産業構造의 近代化<sup>7)</sup> 自立經濟의 基盤構築, 輸出最優先政策<sup>8)</sup> 등을 基本目標로 하는政策이 實施되어 GNP는 年平均 10.5%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고, 輸出은 年平均 33.8%의 伸張率을 記錄했다.

1972年부터 始作된 第2次計劃期間에는 第1次, 第2次計劃期間에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農業部門과 工業部門과의 사이에 生產性隔差 또는 所得隔差가 점점 커다랗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한 policy이 實施된다. 즉, 農村 經濟의 革新的開發과 輸出擴大 그리고 重化學工業化政策을 實施하여 積極的으로 産業間隔差를 縮少하는 方向으로 産業構造를 變化시키려는 것이 基本目標였다.

1972年부터 1976년까지의 GNP成長率은 年平均 10.9%의 높은 水準이었으며 輸出의 年平均伸張率은 50.9%로 最高水準을 유지하였다.

1977年부터 始作된 第4次計劃期間에는 投資資源의 自力調達과 國際收支의 均衡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 등을 통한 自力成長構造의 實現, 所得分配와 生活環境의 改善에 依한 社會開發의 促進, 投資財源의 制約下에서 生產性을 向上시켜 經濟成長率을 높은 水準에서 유지하기 위한 技術의 革新과 能率의 向上을 主要目標로 하고 있다.

1977年에서 1979년까지의 GNP成長率은 年平均 9.7%였고 輸出伸張率은 25.0%로 상당히 높은 水準을 持續하고 있었으나, 1979年 하반기부터의 國內外 政勢의 變化로 우리나라 經濟는 未曾有의 試鍊에 逢着하여 16년만에 負의 成長을 記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sup>9)</sup>

表3은 1962年부터 1979년까지의 貿易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1962年以後의 우리나라의 輸出이 飛躍的伸張을 持續하고 있는 反面, 輸入은 1965年까지는 國內의 貿易政策 등에 의하여 크게 增加하지는 않았지만 重化學工業化가 積極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1966年부터는 急速히 增加하고 있다.

7) CHENERY, H.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0) 및 CHENERY, H.B. & TAYLOR, L., "Development Patterns : Among Countries and over T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68)에 의하면, 産業構造變化에 있어서一般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GNP成長에 따라 GNP構成比가 第一次産業에서는 低下하고 第二次産業에서는 上昇하며 第三次産業에서는 거의 一定하다고 한다. 이러한 産業構造를 指向하는 것을 産業構造의近代化라 하겠다.

8) 輸出最優先政策이란 輸出商社에 대하여 稅制, 金融, 外換, 貿易行政 등의 諸分野에 있어서의 輸出待遇政策을 말한다.

9) 經濟開發이 시작된 1962年이후의 마이너스 經濟成長의 記錄을 보면 1962年 2/4분기 -0.8%, 1963年 2/4분기 -0.5%, 1964年 1/4분기 -2.2%였고, 그이후에는 10%代의 經濟成長을 이룩했으나 1980年에는 1/4분기 -1.8%, 2/4분기 -6.3%, 3/4분기 -0.8%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의 成長率은 -5~6%가 예상되고 있다.

## 韓國의 工業化와 輸出構造의 轉換

5

&lt;表 3&gt;

우리나라의 貿易水準 1962—1979

(단위 : 100만 달러)

年 度	G N P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輸出依存度	輸入依存度	貿易依存度
1962	2,315	54.8	421.8	-367.0	2.4%	18.2%	20.6%
64	2,876	119.1	404.4	-285.3	4.1	14.1	18.2
66	3,671	250.3	716.4	-466.1	6.8	19.5	26.3
67	4,274	320.2	996.2	-676.0	7.5	23.3	30.8
69	6,625	622.5	1,823.6	-1,201.1	9.4	27.5	36.9
71	9,093	1,067.6	2,394.3	-1,326.7	11.7	26.3	38.0
72	10,186	1,674.1	2,522.0	-897.9	15.9	24.8	40.7
74	17,996	4,460.4	6,851.8	-2,391.4	24.8	38.1	62.9
76	26,965	7,751.1	8,773.6	-1,058.5	28.6	32.5	61.1
77	34,406	10,046.5	10,810.5	-764.0	29.2	31.4	60.6
78	45,983	12,710.6	14,971.9	-2,261.3	27.7	32.6	60.3
79	58,025	15,055.5	20,338.6	-5,283.1	25.9	35.1	61.0

자료 : 韓銀, 「한국의 국민소득」, 1978

", 「경제통계년보」, 1980

&lt;表 4&gt;

產業別輸出比率推移

(단위 : %)

產 業 別	1963	1966	1970	1973	1975
農林水產業	0.9	1.2	2.7	4.8	5.7
礦業	15.0	20.8	19.4	13.5	12.4
飲食料品	2.2	5.9	3.7	6.2	8.5
織維	4.8	15.0	26.4	47.2	36.4
其他輕工業	4.1	13.3	22.3	36.7	27.3
化學	1.1	5.2	6.2	10.9	10.5
金屬工業	13.2	9.8	7.2	26.4	17.4
機械工業	2.8	5.8	9.5	33.3	29.2
建設業	2.2	2.7	1.6	1.0	
電力	3.1	4.1	5.3	1.7	
商業	2.8	4.0	4.0	7.9	6.5
サービス	2.5	4.9	4.9	9.7	
其他	22.0	54.4	14.9	21.7	

資料 : 韓銀, 「產業聯關表 作成報告」1973, 1978.

貿易依存度에 있어서는 1962년의 輸出依存度가 2.4%, 輸入依存度가 18.2%로, 貿易依存度가 20.6%였던 것인 1967년에는 각각 7.5%, 23.3%, 30.8%이고, 1972년에는 15.9%, 24.8%, 40.7%이며, 1976년에는 28.6%, 32.5%, 61.1%로 크게 上昇되어 우리나라 經濟가 貿易에 크게 依存하게 되었다.

輸出依存度가 높은 것은 急速한 輸出指向型 工業化를 成長目標로 하고있기 때문이며 輸入依存도가 높은 것은 工業化政策에 따라 原資材를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 産業研究

&lt;表 5&gt;

産業別 輸入依存度 推移

(단위 : %)

産業別	1963	1966	1970	1973	1975
農林水産業	3.8	3.2	1.1	1.2	2.3
礦業	3.2	2.0	1.6	4.8	4.0
飲料品	11.4	7.2	10.9	20.2	18.8
織維	21.2	19.8	19.0	21.9	13.5
其他輕工業	21.0	21.2	22.9	28.9	22.5
化學	20.2	27.2	30.5	32.3	40.1
金屬工業	28.1	27.5	32.0	37.5	27.7
機械工業	16.2	17.4	24.2	34.9	26.3
建設業	9.6	8.4	9.2	9.7	6.2
電力	9.4	0.9	1.5	1.5	6.2
商業	0.4	0.8	0.7	1.1	1.0
서비스	3.2	2.3	1.9	2.5	3.6
其他	0.7	2.7	3.8	4.6	4.9

資料：表 4와 같음。

이와같은 現像은 부존자원이 貧弱하고 市場이 開發되지 않은 狀態의 우리나라가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推進하여야만 했던 重化學工業化政策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貿易構造를 產業別로 分析한 것이 表4, 表5에 明示되어 있다. 輸出比率 즉 輸出額의 總算出額에 對한 比率을 표시한 것이 表 4로써 織維, 其他輕工業, 金屬工業, 機械工業 등 大部分의 二次產品의 輸出比率이 높다.

1966年 이후를 살펴보면 矿業의 輸出比率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農水產品 및 飲料品의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全製造業部門이 계속 높아지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輸入中間財 投入比率을 나타내는 輸入依存度를 表 5에서 보면, 其他輕工業 化學 金屬工業 機械工業등의 輸入依存度가 높고 農林水產業 矿業등이 낮은 水準이다. 輸入依存度가 1973年까지는 계속 높아졌으나 그후 낮아지고 있는 部門은 飲料品, 織維, 其他輕工業, 金屬製品, 機械工業, 建設業등으로 이部門에 있어서는 原資材와 製品의 輸入代替가 어느정도 이루어 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貿易은 輸出比率에 있어서도 輸入依存度에 있어서도 第2次產品이 높은 水準을維持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事實은 우리나라가 工業原料를 輸入하여 單純加工의 段階를 거쳐 그 것을 輸出하는 貿易패턴을 形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 貿易商品構造 및 地域構造

#### (1) 商品構造의 推移

우리나라의 貿易構造를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分類에 의하여 輸出商品構成比와 輸入商品構成比로부터 관찰해 보고자 한다.

&lt;表 6&gt;

商品類別 輸出入 構成比 推移(%)

商品類別	수 출					입				
	1962	1966	1971	1976	1979	1962	1966	1971	1976	1979
食品 및 生動物	39.9	16.5	6.5	6.6	7.2	11.5	10.1	16.7	7.1	7.0
飲料 및 煙草	0.3	2.8	1.4	1.0	0.8	0.0	0.0	0.2	0.3	0.3
非食用原資료	35.2	18.6	8.9	2.5	2.4	21.3	21.5	19.3	17.8	16.0
礦物性燃料	5.0	0.6	1.1	1.9	0.1	7.3	5.9	7.9	19.9	18.6
動植物性油脂	0.1	0.1	0.0	0.0	0.2	0.9	0.8	0.9	0.7	0.7
化學製品	1.8	0.3	1.4	1.5	3.5	22.4	18.8	8.4	9.9	9.9
原料別製品	11.3	33.6	30.8	30.3	32.0	17.3	17.5	15.2	13.1	13.4
機械·運搬機械	2.6	3.8	8.2	16.6	20.6	16.5	24.0	28.6	27.2	30.1
雜製品	3.6	23.6	41.7	39.2	33.1	2.4	1.5	2.8	3.8	3.5
未分類	0.1	0.1	0.0	0.3	0.1	0.3	0.0	0.0	0.1	0.3
總輸出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韓銀, 「경제통계년보」各號

輸出商品構成比에 있어서는 食品 및 生動物과 非食用原材料가 1962年에서 1979年에 이르는 17年間에 각각 39.9%에서 7.2%, 35.2%에서 2.4%로 크게 減少했고 原料別製品, 機械·運搬機械 雜製品등 二次產品의 構成比가 크게 增加하여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輸入商品構成比에 있어서는 食品 및 生動物, 非食用原材料, 化學製品, 原料別製品 등이 第二次計劃期間이 끝나는 1971年이후부터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고 矿物性燃料, 機械·運搬機械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976年부터의 矿物性燃料의 急激한 增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矿物性燃料中 石油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973年 이후의 계속적인 Oil shock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表 7에서 우리나라의 主要商品別 輸出入構成比를 보면 輸出構成比에 있어서는 지난 17年間 第一次產品이 80.6%에서 10.7%로 크게 低下하고 있는 反面 第二次產品이 19.3%에서 89.2%로 增加하고 있다.

製造工產品의 輸出이 크게 增加한 것은 重化學工業製品이 1962年的 5.3%에서 1979年 37.7%로 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輕工業製品은 1962年에서 1971年까지의 第一第二次經濟開發計劃期間에는 急速히 늘어났지만 그 이후부터 점차 低下傾向을 보이고 있다.

1971年을 살펴보면 合板, 纖維類, 衣類등 輕工業製品이 全體輸出의 5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76年에는 40.8%, 1979年에는 33.6%로써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아직도 一部 輕工業製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있다.

&lt;表 7&gt;

主要商品別 輸出入構成比 推移(%)

商品商品別 <sup>1)</sup>	輸出					輸入				
	1962	1966	1971	1976	1979	1962	1966	1971	1976	1979
一次產品	80.6	38.5	17.9	12.0	10.7	41.0	38.3	45.0	46.0	42.7
二次產品	19.3	61.4	82.1	87.7	89.2	58.7	61.7	55.0	53.9	57.0
輕工業製品	(14.0)	(53.0)	(69.9)	(59.2)	(51.5)	(12.8)	(11.9)	(11.8)	(9.0)	(7.3)
合板	4.2	11.9	11.6	4.5	2.6	1.2	2.6	2.1	0.0	0.0
纖維類	5.8	13.8	12.9	12.4	12.1	6.8	6.3	5.7	3.6	2.2
衣類	3.6	13.3	28.5	23.9	18.9	0.1	0.1	0.3	0.1	0.1
重化學工業製品	(5.3)	(8.4)	(12.2)	(28.5)	(37.7)	(45.9)	(49.8)	(43.2)	(44.9)	(49.7)
化學製品	1.8	0.3	1.4	1.5	3.5	22.4	18.8	8.4	9.6	9.9
鐵・鋼鐵	0.9	3.2	2.3	4.8	7.3	4.5	5.5	5.4	4.9	5.5
機械類	2.4	3.8	8.1	16.6	20.6	16.6	23.9	28.6	27.2	30.1
非鐵金屬	0.0	1.0	0.3	0.2	0.3	1.6	1.6	0.8	1.4	1.9
金屬製品	1.1	1.7	1.3	2.9	4.0	—	2.6	2.1	1.0	1.5
總輸出入 <sup>2)</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韓銀，「경제통계년보」各號。1) 商品類는 SITC에 의함。2) 100%는 미분류를 포함함。

重化學工業製品은 機械類, 鐵・鋼鐵등이 크게伸張하고 있어 貿易構造의高度化를 積極적으로推進하려는 과정에서 볼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期間의 輸入構成比에 있어서는 1976年까지 第一次產品이增加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第二次產品이減少傾向을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 經濟成長에 따라 輸入中間財의需要增加로 第二次產品의 輸入이 다시增加하게 되었다.

二次產品中輕工業製品部門은 輸入代替가可能하게 되어 輸入比가 줄어들고 있는데, 重化學工業製品은 輸入代替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increase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 (2) 地域構造의 推移

表 8을 보면 우리나라의 貿易市場이 美國과 日本에偏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輸出入地域構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輸出은 第3次經濟計劃이 시작되는 1972年까지는 美國의比重이 커으나 그 이후부터는 他地域의比重이急速히 커지고 있다.

輸入은 第1次計劃期間에는 美國의比重이 커으나 2次期間과 3次期間의前半까지는 日本의比重이 커고 그 이후부터는 他地域의比重이 커지고 있다. 1966年부터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增加하고 있는 것은 1965年 양국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환경이 비슷한 日本으로부터의直接投資가增加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輸出에 있어서 높은伸張率을 기록했고高度成長을 이룩했던 시기에 있어서는 美國이 輸出市

&lt;表 8&gt;

主要 國別 貿易 構成比 1962~1979. (%)

年 度	수 출			수 입		
	미 국	일 본	타 지 역	미 국	일 본	타 지 역
1962	21.8	42.8	35.4	52.2	25.9	21.9
1964	29.9	32.0	38.1	50.0	27.2	22.8
1966	38.3	26.5	35.2	35.4	41.0	23.6
1967	42.9	26.5	30.6	30.6	44.5	24.9
1969	47.6	20.1	32.3	29.1	41.3	29.6
1971	49.8	24.5	25.7	28.3	39.8	31.9
1972	46.7	25.1	28.2	25.7	40.9	33.4
1974	33.5	30.9	35.6	24.8	38.3	36.9
1976	32.3	23.4	44.3	16.2	28.4	55.4
1977	31.0	21.4	47.6	22.6	36.3	41.1
1979	29.1	22.3	48.6	22.6	32.7	44.7

資料：韓銀、「經濟統計年報」，各號

場으로써 日本이 輸入市場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他地域의 比重이 커지기 시작한 1974年을 예를 들더라도 輸出에 있어서는 美國 33.5%，日本 30.9%，他地域 35.6%，輸入은 각각 24.8%，38.3%，36.9%이며，1979年에 있어서는 輸出이 29.1%，22.3%，48.6%이고，輸入은 22.6%，32.7%，44.7%로써 美國과 日本에 대한 輸出入比가 低下傾向을 나타내고 있지만，두 나라를 합하면 1974년의 輸出은 64.4%，輸入이 63.1%로 아직 높은 水準이며 1979년에 있어서 조차 각각 51.4%，55.3%로써 우리나라 貿易이 이들 두 나라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國別 輸出入 構造는 아직도 美國과 日本에 偏重되어 있는 實情이며 이 러한 偏重현상은 經濟의 隸屬化를 招來할 우려가 있고 相對國의 經濟政策과 景氣變動등의 經濟環境등에 敏感하게 影響을 받게 되므로 貿易市場의 多邊化가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1974年 이후 우리나라의 積極的인 通商政策과 新商品開發로 美國과 日本의 比重이 점차로 減少되고 있으며 對 Europe市場의 比重도 1974년에 輸出이 13.8%，輸入이 6.9%였던 것이 1976년에는 17.5%，9.0%로，1979년에는 18.8%，12.5% 계속 增加하고 있다.

또 中東地域을 中心으로 한 對開發途上國市場에의 輸出로 增加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最近 EC를 中心으로한 先進工業國들의 保護貿易主義에 依한 韓國商品輸入規制의 強化와 開發途上國들의 急速한 輕工業發達등은 우리나라 輸出伸張 및 輸出市場開拓에 커다란 問題를 제기시켜 주고 있다.

이와같은 現像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輸出市場의 多邊化는 美國 日本에 對한 輸出商品의 量的增加를 持續시켜 나가면서 Europe市場과 中東을 中心으로 하는 對開途國市場을 擴大開拓하므로써 美國과 日本에 對한 偏重現像을 점차적으로 緩化改善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4. 貿易構造轉換과 工業化政策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工業化政策은 國際收支制約下에서 經濟成長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政策으로서는 輸入代替的工業化政策과 輸出指向型工業化政策이 利用되고 있다.

大部分의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工業化政策도 國際收支를 均衡시키기 위하여 推進되어지고 있다.<sup>10)</sup>

따라서 工業化를 위한 開發投資는 大量의 生產財輸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投資는 輸出擴大에 優先하여 積極的으로 輸出을 推進하여야 하고 輸入依存度를 낮추기 위하여 輸入商品을 國內生產으로 代替하려는 政策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際收支를 均衡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外資導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장래 보다 많은 金額을 償還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輸入代替와 輸出指向型工業化政策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sup>11)</sup>

工業化는 資本의 內生的 蓄積過程이며 그 蓄積이 均衡의 原則위에서 反復되어지지 않으면 않되며 그 蓄積은 貨幣資本만이 아니고 機械設備, 工具, 原資材 및 在庫資產등의 實物資本의 形態로써의 蓄積을 反復하면서 生產設備의 量的增大는 물론 質的으로도 投入係數의 變化를 통한 生產構造의 革新을 포함하여 重化學工業化로 進展되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工業化는 韓國戰爭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外國援助에 의한 消費財工業이 大分部이었다. 이는 戰災를 입은 國民의 日常生活에 直接되는 消費財生產이 最優先되어야 했던 것과 美國의 援助의 거의가 消費財였던 것에 기인한다.<sup>13)</sup>

이와 같은 消費財工業化는 1960年까지 계속되지만 停滯狀態를 면치 못하였고 積極的인 工業化는 1962年부터 시작되는 第1次經濟開發計劃을 基點으로하여 技術導入 大量生產體制確立 등 生產工程의 高度化를 꾀하고 石油化學, 鐵鋼, 機械, 金屬產業 등 戰略產業을 開發育成시켜 中間資本財產業의 成長基盤을 확고히 하여 輸入代替와 輸出擴大를 促進시키려는 側面에서 행하여졌다.

1962年에서 1976年에 이르는 第1次, 2次, 3次 經濟開發計劃期間에 輸入代替와 輸出擴大가 工業化의 基盤위에서 어느정도 달성되어 貿易構造가 크게 變化하게 했고 높은 輸出伸張率을 記錄하므로써 高度成長을 가능케 하였으며 高度成長은 重化學工業化를 促進시키게 되었다.

10) 山本登編「アジアの貿易」,(アジア經濟講座 第5卷), 東洋經濟 1977, p.27.

11) 上掲書, p.28.

12) 白求勲, 前掲書, p.18.

13) 本稿 表1 참조바람.

1977年부터 시작된 第4次期間에도 重化學工業化政策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重化學工業部門에 過剩開發投資가 發生하게 되었고 輸入增加에 의한 對外依存度가 上昇하였으며 輸出原料의 輸入이 輸出水準과 比例하여 增大하는 輸出構造의 硬直性 때문에 貿易收支가 惡化하는 등 工業化過程에서의 問題點이 露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輸入代替와 輸出擴大의 工業化政策의 持續的인 推進은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開發投資를 前後方連關產業의 連關度가 높은 產業에 置重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工業化에 의한 輸入代替 또는 輸出擴大가 貿易收支改善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 III. SITC分類에 의한 成長寄與度 分析

前章에서 본바와같이 우리나라의 輸出은 1962年부터 시작된 第1次, 第2次, 第3次經濟開發計劃期間에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으며 經濟成長을 主導하는 役割을 담당했다.

GNP에 대한 輸出比率은 1962年부터 1979年까지가 17.4%였으며 시기별로는 1962~66年에 4.7%였던 것이 1971~76年에는 26.2%, 1976~79年에는 27.6%로 增加하였다.<sup>14)</sup>

이와같이 우리나라經濟는 輸出에 크게 依存하고 있으며 輸出商品은 주로 輕工業製品으로 構成되어 있고 輸出地域이 아직도 美國과 日本에 偏重되어 있다.

우리나라經濟가 輸出指向型高度成長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輸出擴大가 전제조건이 되겠으나 先進工業國들의 새로운 經濟질서에 의한 保護貿易主義傾向의 深化를 생각할 때 輸出商品高度화를 전제로 하는 輸出의 量的增加와 輸出商品構造轉換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GNP中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는 輸出을 商品別로 分類하여 輸出成長率에 대한 各部門의 寄與度를 數量的으로 分析하므로서 輸出商品構造轉換을 위한 接近方法의 要因을 說明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輸出을 一次產品(SITC : 0~4), 二次產品(SITC : 5~8)으로 나누어 SITC分類 1階段의 全體의 인 것과 工業化의 指標로 삼고있는 製造工產品을 SITC分類 2階段까지의 分析에 의하여 各部門의 輸出成長率과 輸出成長率에 대한 各部門의 寄與度를 고찰하고자 한다.

SITC code 0~9까지는 다음과 같다.

SITC code

- 0. 食料品 및 生動物
- 1. 飲料 및 煙草
- 2. 非食用原料

14) 表 3에서 算出하였음.

3. 鎳物性燃料 및 潤滑油  
 4. 動植物性油脂  
 5. 化學品  
 6. 原料別製品  
 7. 機械 및 運搬器機  
 8. 雜製品  
 9. 未分類
- 全體輸出(TOTAL)

表 9는 SITC分類 1階段의 各部門의 全體輸出成長率과 輸出成長率에 대한 各部門의 寄與度를 나타내고 있다.<sup>15)</sup>

전期間(1962~79)에 있어서 輸出成長率이 높은 部門은 8.(雜製品), 7.(機械 및 運搬器機), 1.(飲料 및 煙草), 6.(原料別製品), 5.(化學品) 등으로 45%이상의 伸張率를 부어고 있으며

〈表 9〉 전체수출성장율과 성장을 대한 기여도 (%)  
GROWTH RATE OF SECTOR EXPORTS

TOTAL	SITC Code										
	0	1	2	3	4	5	6	7	8	9	
1962~1979	39.140	25.780	48.560	18.790	11.710	41.980	44.740	47.940	57.020	58.620	41.750
1962~1966	46.180	17.160	164.410	24.670	-14.060	18.700	-7.840	92.130	60.330	134.600	37.710
1966~1971	33.650	11.030	17.250	15.240	49.600	-10.200	83.520	31.280	55.700	49.720	11.350
1971~1976	48.520	48.800	38.650	15.590	66.560	70.970	51.700	48.060	71.050	46.710	129.840
1976~1979	24.960	28.630	14.660	22.600	-49.930	183.780	64.490	27.250	34.290	18.030	-1.550
WEIGHT FOR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1962~1979	1.000	.080	.010	.037	.009	.000	.023	.308	.170	.356	.002
1962~1966	1.000	.197	.012	.234	.016	.000	.005	.331	.033	.167	.001
1966~1971	1.000	.087	.018	.122	.008	.000	.011	.296	.070	.384	.000
1971~1976	1.000	.079	.010	.041	.018	.000	.016	.312	.142	.376	.002
1976~1979	1.000	.076	.009	.026	.007	.000	.026	.306	.191	.353	.002
CONTRIBUTION TO GROWTH RATE OF TOTAL EXPORTS											
1962~1979	39.140	2.062	.486	.695	.105	.000	1.029	14.766	9.693	20.869	.083
1962~1966	46.180	3.381	1.973	5.773	-.225	.000	-.039	30.495	1.991	22.478	.038
1966~1971	33.650	.960	.311	1.859	.397	.000	.919	9.259	3.899	19.092	.000
1971~1976	48.520	3.855	.386	.639	1.198	.000	.827	14.995	10.089	17.563	.260
1976~1979	24.960	2.176	.132	.588	-.350	.000	1.677	8.338	6.549	6.365	-.003

資料：부표 1.

15) DENISON, E.F., "Accounting for United States Economic Growth 1929~1969", The Brookings Institution, 1674. 第三章의 分析에서 採用한 方法을 採用하여 輸出成長率과 各部門의 寄與度를 測定했다.

1. (飲料 및 煙草)를 제외하고는 모두 製造業部門인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經濟計劃期間單位로 보면 第3次期間(1971~76)이 48.5%로 가장 높고 全體的으로도 安定的인伸張을 持維하고 있다. 가장 낮은 것은 第4次期間(1976~79)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寄與度을 계산하기 위한 각부문의 比重을 보면 8.(雜製品), 6.(原料別製品)이 全期間에 있어서 3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부문은 4.(動植物性油脂), 9.(未分類), 3.(礦物性燃料) 등으로 1%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各期間의 全體輸出成長率에 대한 寄與度가 높은 부문은 8.(雜製品), 7.(機械 및 運搬器機) 10.(食料品 및 生動物)의 順으로 比重이 높은 부문의 寄與度가 높았다.

寄與度가 낮아지고 있는 부문은 8.(雜製品), 2.(非食用原料), 6.(原料別製品) 등으로 2.를 제외한 8.과 6.은 輕工業製品이며 이들 부문의 寄與度가 第3次期間(1971~76) 이후 크게低下되고 있는 것은 輕工業製품의 輸出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製造工產品의 2階段까지의 各部門은 다음과 같다.

#### SITC code

##### 5. 化學品

- 51. 化學元素 및 同化合物
- 53. 染料 tanning 및 着色材料
- 54. 醫藥品
- 55. 精油, 香料 化粧品磨剤 및 洗淨劑
- 56. 化學肥料
- 58. プラ스틱材料 再生세루로즈 및 人造樹脂

##### 6. 原料別製品

- 61. 皮革 및 同製品
- 62. 고무제품
- 63. 木製品 및 코르크製品(家具除外)
- 64. 紙·板紙 및 同製品
- 65. 織物用纖維絲, 織物 및 纖維製品
- 66. 非金屬礦物製品
- 67. 鐵 및 鋼鐵
- 68. 非鐵金屬
- 69. 金屬製品

##### 7. 機械類 및 運搬用器機類

- 71. 機械類
- 72. 電氣機械
- 73. 運輸用器機類
- 8. 雜製品
  - 81. 室內衛生用品, 煙房機具 및 照明機具
  - 82. 家具
  - 83. 旅行用具 핸드백 및 동유사품
  - 84. 衣類
  - 85. 신발류
  - 86. 專門器機, 科學器機, 調整器機, 사진용품 光學器機 및 시계
  - 89. 雜製品(別個이외의 것)

製造工產品을 SITC分類 2階段까지 分析한 결과를 表10~表13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化學品(5)의 경우 全期間(1962~79)에 있어서는 56.(化學肥料), 53.(染料類), 58.(프라스틱類) 등이 70%이상의 伸張率을 보여주고 있고, 化學品을 全體的으로 보면 第2次期間(1966~71)에 가장 높은 83.5%의 伸張率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伸張을 계속하여 第4次期間(1976~79)에는 製造工產品 중 가장높은 신장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56.(化學肥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각부문의 比重을 보면 51.(化學元素 및 同化合物)이 가장 높아 이 부문이 化學品의 輸出을 주도하였으나 1976年 이후부터는 56.(化學肥料)의 급속한 輸出擴大로 그 比重이 크게 높아졌고 낮은 부문은 55.(精油, 香料등), 53.(染料類)등이다.

全期間(1962~79)의 成長率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부문은 56.(化學肥料), 51.(化學元素 및 同化合物), 58.(프라스틱類)등이다.

化學品에 있어서는 56.(化學肥料)의 急速한 增加와 그 比重이 51.(化學元素 및 同化合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부분의 기여도가 全體成長率과 크게 다를 경우가 많다.<sup>16)</sup>

原料別製品(6)에 있어서는 全期間을 통하여 볼 때 부문적으로多少의 차이는 있지만 순조로운 伸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1962~79年の 年平均 增加率은 47.9%이며 第1次와 第3次期間에는 높은 伸張率을 기록했으나 1976年이후부터 신장을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第4次期間에는 27.2%였으나 67.(鐵 및 鋼鐵)만은 지속적인 신장을 보여 4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6) 부표 1을 보면 SITC code No. 6, 7, 8 등은 1962年부터 1963年까지의 1年間에 약 3~4倍로 增加하고 있으며, 부표 2의 56의 경우에는 統計上에는 1962年부터 1973年까지는 제로였으나 計算上 1을 주었던 것이며 1975年 3만달러에서 1976年에는 1천 1백 5십 3만달러로 增加하는등 그 增幅이 심한 경우에는 本稿에서 計算한 寄與度가 伸張率보다 많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貿易政策이나 相對國의 景氣變動등의 外生變數에 의해서만 說明이 可能하다고 하겠다.

&lt;表 10&gt;

화학품(5)의 수출성장을과 기여도(%)  
GROWTH RATE OF SECTOR EXPORTS

## TOTAL SITC Code

	51	53	54	55	56	58
1962~1979	44.740	37.390	79.760	41.480	27.870	106.320
1962~1966	-7.480	-10.360	108.770	7.310	-55.160	.000
1966~1971	83.520	27.530	59.310	100.800	133.890	.000
1971~1976	51.700	106.840	95.400	33.820	70.900	221.530
1976~1979	64.490	39.020	56.700	25.200	16.600	168.230

## WEIGHT FOR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1962~1979	1.000	.401	.039	.052	.016	.308	.109
1962~1966	1.000	.741	.012	.085	.106	.001	.033
1966~1971	1.000	.311	.040	.095	.016	.000	.182
1971~1976	1.000	.540	.043	.089	.025	.030	.143
1976~1979	1.000	.380	.040	.042	.015	.383	.099

## CONTRIBUTION TO GROWTH RATE OF TOTAL EXPORTS

1962~1979	44.740	14.993	3.111	2.157	.446	32.747	8.173
1962~1966	-7.840	-7.677	1.305	.621	-5.847	.000	3.679
1966~1971	83.520	8.562	2.372	9.576	2.142	.000	16.125
1971~1976	51.700	57.694	4.102	3.010	1.772	6.646	7.054
1976~1979	64.490	14.828	2.268	1.058	.249	64.432	5.567

資料 : 부표 2

原料別製品에 있어서 輸出主導品目은 65.(纖維類)로써 1962~79년의 平均比重이 38.6%에 이르고 있으며 61.(皮革 및 同製品)이 0.7%로 낮은 수준이다.

輸出成長率에 대한 寄與度가 높은 부문은 輸出主導品目이었던 65.(纖維類)와 높은 伸張率을 유지하고 있는 67.(鐵 및 鋼鐵)로 각각 18.7%포인트, 9.8%포인트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寄與度가 낮은 부문은 比重이 낮았던 61.(皮革 및 同製品)과 成長率이 가장 낮았던 68.(非鐵金屬)으로 0.5%포인트 미만의 수준이었다.

機械 및 運搬器機(7)에서는 全期間을 통하여 72.(電氣機械)가 가장 높은 伸張率을 보이고 있고, 期間別로는 第3次期間의 伸張率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76年 이후에는 輸出主導品目인 72.(電氣機械)의 伸張率이 低下傾向을 보이고 있고, 73.(運搬用機械類)이 지속적인 신장을 유지하고 있다.

全期間의 各部門의 比重을 보면 72.(電氣機械)가 56.7%로 가장 높았고 71.(機械類)이 10.0%로 낮은 수준이다.

寄與度에 있어서는 比重이 높았던 72.(電氣機械)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1976年 이후

&lt;表 11&gt;

원료별제품(6)의 수출성장률과 기여도(%)  
GROWTH RATE OF SECTOR EXPORTS

TOTAL SITC Code

	61	62	63	64	65	66	67	68	69
1962~1979	47.940	78.100	63.970	37.190	60.660	48.360	58.190	55.790	36.130
1962~1966	92.130	146.630	109.390	90.980	150.900	98.550	93.130	92.750	78.100
1966~1971	31.280	71.370	26.720	33.290	-12.080	31.930	53.120	24.660	4.990
1971~1976	48.060	73.720	96.330	23.180	157.510	47.250	68.110	72.150	40.100
1976~1979	27.250	28.240	34.710	10.840	10.350	23.880	15.670	44.010	39.810

WEIGHT FOR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1962~1979	1.000	.007	.054	.158	.022	.386	.066	.176	.010	.117
1962~1966	1.000	.000	.017	.305	.006	.399	.032	.166	.039	.036
1966~1971	1.000	.001	.016	.414	.004	.411	.027	.051	.018	.053
1971~1976	1.000	.006	.046	.192	.024	.392	.063	.187	.007	.078
1976~1979	1.000	.008	.062	.125	.023	.385	.072	.174	.010	.138

CONTRIBUTION TO GROWTH RATE OF TOTAL EXPORTS

1962~1979	47.940	.547	3.454	5.876	1.335	18.667	3.841	9.819	.361	5.890
1962~1966	92.130	.000	1.860	27.749	.905	39.321	2.980	15.396	3.046	2.269
1966~1971	31.280	.071	.428	13.782	-.048	13.123	1.434	1.258	.090	1.439
1971~1976	48.060	.442	4.431	4.451	3.780	18.522	4.291	13.492	.281	5.833
1976~1979	27.250	.226	2.152	1.355	.238	9.194	1.128	7.658	.398	5.350

資料 : 부표 3.

의伸張率低下로 인하여 急激히 낮아진 대신에 1972年 이후 높은 成長率을 지속했던 73(運搬用機械類)의 寄與度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寄與度가 낮은 부문은 輸出規模가 적은 71.(機械類)이었다.

雜製品(8)은 全盤的으로 같은 比率의 伸張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1976年이후부터 크게 낮아지기 시작하여 第4次期間(1976~79)에는 18.1%의 낮은 伸張率을 기록하게되어 우리나라 全體輸出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雜製品에서 그比重이 높은 부문은 輸出主導品目이었던 84.(衣類), 89.(雜製品), 85.(신발류)로써 각각 59.5%, 18.2%, 13.1%이고, 그比重이 낮은 부문은 81.(室內用品, 燈房, 照明)과 82.(家具)로 1%이하의 수준이다.

成長率에 대한 寄與度는 比重이 높았던 84.(衣類), 89.(雜製品), 85.(신발류) 등으로 輸出을 主導했던 부문이 높은 수준이였고 寄與度가 낮은 부문은 輸出比重이 낮은 81.(室內用品, 暖房, 照明)과 82.(家具)였다.

製造工產品을 全體的으로 볼때 51.(化學元素 및 同化合物), 56.(化學肥料), 65.(纖維類),

&lt;表 12&gt;

기계 운반기기(7)의 수출성장율과 기여도 (%)  
GROWTH RATE OF SECTOR EXPORTS

## TOTAL SITC Code

		71	72	73
1962~1979	57.020	50.740	76.650	50.590
1962~1966	60.330	87.110	163.340	-6.300
1966~1971	55.700	26.930	68.120	53.830
1971~1979	71.050	60.750	63.730	118.200
1976~1979	34.290	35.200	27.850	47.460

## WEIGHT FOR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1962~1979	1.000	.100	.567	.331
1962~1966	1.000	.351	.389	.259
1966~1971	1.000	.164	.712	.114
1971~1976	1.000	.116	.673	.209
1976~1979	1.000	.093	.535	.371

## CONTRIBUTION TO GROWTH RATE OF TOTAL EXPORTS

1962~1979	57.020	5.074	43.461	16.745
1962~1966	60.330	30.576	63.539	-1.632
1966~1971	55.700	4.417	48.501	6.137
1971~1976	71.050	7.047	42.890	24.704
1976~1979	34.290	3.274	14.900	17.608

資料 : 부표 4.

72.(電氣機械), 84.(衣類), 89.(雜製品) 등 비교적 勞動集約的 產業門部이로서 우리나라輸出을主導했던 品目의 寄與度가 높은 수준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輸出構造가 輕工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質 높은 勞動力이 싸고 豐富하게 供給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1976年이후 56.(化學肥料)을 제외한 이들 부문의 伸張率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事實에 注目한다면 石油波動의 물고온 不況局面에 의한 世界的인 新經濟秩序에 대처할 수 있는 輸出產業構造의 方向轉換이 不可避辭 겠다고 해야 하겠다.

世當의인 景氣沈滯에도 불구하고 56.(化學肥料), 67.(鐵 및 鋼鐵), 69.(金屬製品), 73.(運搬用器機類) 등의 寄與度 및 伸張率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重化學工業化를 目標로 하는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經濟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高度成長政策上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lt;表 13&gt;

제품(8)의 수출성장율과 기여도(%)  
GROWTH RATE OF SECTOR EXPORTS

## TOTAL SITC Code

	81	82	83	84	85	86	89
1962~1979	58.620	61.260	47.210	108.130	58.610	61.020	58.050
1962~1966	134.600	274.160	9.670	24.210	133.710	118.920	55.370
1966~1971	49.720	-29.340	93.460	67.150	55.570	46.920	53.010
1971~1976	46.690	103.490	63.640	92.270	43.400	60.480	97.680
1976~1979	18.060	41.010	15.870	21.750	15.570	25.240	17.550

## WEIGHT FOR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1962~1979	1.000	.001	.007	.046	.595	.131	.037	.182
1962~1966	1.000	.005	.001	.004	.576	.099	.015	.296
1966~1971	1.000	.000	.003	.008	.647	.065	.009	.264
1971~1976	1.000	.000	.007	.036	.625	.111	.033	.185
1976~1979	1.000	.001	.008	.053	.580	.146	.043	.170

## CONTRIBUTION TO GROWTH RATE OF TOTAL EXPORTS

1962~1979	58.620	.061	.330	4.974	34.873	7.994	2.148	10.208
1962~1966	134.600	1.371	.010	.097	77.017	11.773	.831	45.611
1966~1971	49.720	.000	.280	.537	35.954	3.050	.477	9.805
1971~1976	46.690	.000	.445	3.322	27.125	6.713	3.223	7.252
1976~1979	18.060	.041	.127	1.153	9.031	3.685	.755	3.810

資料 : 부표 5.

## IV. 結 言

産業構造와 貿易構造의 形成은 各國의 資源賦存상태 國內市場의 크기 技術水準등에 의하여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또 GNP 1人當所得水準, 就業人口의 業種別構成比 및 失業率, 國際收支의 狀態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밖에도 一連의 經濟開發計劃에 의하여 輸入代替와 輸出指向型工業化政策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工業部門 또는 都市部門에 開發投資가 集中하므로써 과잉投資가 發生하여 生產性이 낮아지기도 하고 產業構造 내지 貿易構造가 變化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構造變化 要因을 염두에 두고 이상의 分析結果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輸出構造는一次產品의 全盤的인 低下傾向과 製造工產品의 增加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勞動集約의 輕工業製品의 比重이 크며 輸出市場이 特定地域에 크게 偏重되어 있는 現像을 보여주고 있다.

輸出을 主導했던 勞動集約的產業部門의 輸出伸張率이 1976年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輸出을 통한 高度成長에 의하여 中進國으로부터 先進國으로 飛躍하려고 하는 우리나라經濟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게 되었고 輸出產業의 構造轉換을 불가피하게 하는 커다란 要因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石油價引上에 의하여 深化되어 가는 世界不況局面에 있어서도 製造工產品中化學肥料鐵, 및 鋼鐵, 金屬製品, 運搬用器機類 등의 輸出이 계속增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化가 發展에서 成熟으로 향한 基調위에 定着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輸出成長率에 대한 寄與度가 높은 부문은 繊維類, 電氣機械, 衣類, 雜製品 등 輕工業門이었으나, 1976年이후 그 寄與度가 점점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은 後發途上國들의 이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競爭關係가 점차 深化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이 부문에 의한 계속적인 높은 기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輸出이 安定的인 擴大를 持續하기 위해서는 勞動集約的 輕工業部門의 高加工度產業을 開發育成하여 國際競爭力を 提高하고 技術水準 및 資本能力을 감안 投資資源과 에너지資源을 節約할 수 있는 技術集約的產業을 선별육성하여 輸出商品의 高度化와 獨自의 技術開發에 의한 輸出商品의 多樣化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며 相對國의 景氣沈滯나 貿易政策등에서 오는 危險을 分散하기 위하여 地域別構成比가 더욱 平準화할 수 있도록 輸出市場의 多邊化가 要求되어지고 있다.

輸出商品高度化를 推進하는데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重化工業化가 高度成長을 위한 輸出構造轉換의 目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前述한바와 같이 產業構造 内지 輸出構造는 勞動力·資本·天然資源으로 構成되는 生產要素의 賦存狀態, 消費·投資·輸出로 構成되는 最終需要, 投入係數·輸入係數·勞動資本係數·附加價值率로 構成되는 技術體係 등 여러 要因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轉換되는 것이지 成長要因이나 工業化政策에 의해서만 轉換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친 重化學工業化의 推進은 이부문에 과잉투자를 發生케 하여 稼動率이 낮아지고 生產性이 低下되는 結果를 초래했으며, 高度成長은 經濟環境을 파괴했고 重化學工業과 輕工業, 輸出產業과 內需產業, 大企業과 中小企業 사이에 不均衡發展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輸出構造는 重化學工業에 대하여 適正投資가 이루어져서 調和와 均衡成長을 유도할수 있는 產業政策의 再定立이 先行되어 成長率과 寄與度가 높은 產業으로 轉換이 고려되어야 하고 成長潛在力이 있는 產業部門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技術革新에 의하여 單純加工方法에서 탈피하여 高加工度產業을 開發育成하는 方向으로의 轉換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 產業研究

부표 1. 각부문의 수출액

(단위 : 1,000달러)

1962—1972 INPUT DATA

TOTAL SITC code

	0	1	2	3	4
	5	6	7	8	9
1962.	54813.	21899.	141.	19320.	2760.
1963.	86802.	18059.	250.	26187.	2579.
1964.	119058.	26350.	184.	31442.	2488.
1965.	175082.	28190.	898.	37033.	1899.
1966.	250334.	41274.	6892.	46680.	1505.
1967.	320229.	37928.	7019.	58005.	1772.
1968.	455401.	44492.	8621.	61506.	2298.
1969.	622516.	50279.	14850.	73042.	4837.
1970.	835185.	65537.	14231.	99973.	8761.
1971.	1067607.	69661.	15277.	94875.	11278.
1972.	1624088.	106988.	14006.	119200.	18176.
1973.	3225025.	245588.	22947.	196102.	35424.
1974.	4460370.	299735.	47514.	198429.	107731.
1975.	5081016.	602339.	67565.	150494.	104477.
1976.	7715108.	508331.	78279.	195800.	1446911.
1977.	10046457.	945001.	108390.	299885.	116766.
1978.	12710642.	932598.	119969.	328674.	40617.
1979.	15055453.	1082053.	118016.	360835.	18148.
1962.		990.	6177.	1446.	1954.
1963.		904.	28115.	4067.	6401.
1964.		630.	42310.	2204.	13197.
1965.		380.	66414.	5501.	34487.
1966.		714.	84176.	9555.	59197.
1967.		2359.	101382.	14185.	97239.
1968.		3116.	143599.	24464.	167006.
1969.		9754.	173826.	53219.	242345.
1970.		11413.	220887.	61,469.	352497.
1971.		14867.	328356.	87441.	445420.
1972.		36079.	514236.	171647.	642757.
1973.		48514.	1102937.	396903.	1169865.
1974.		91833.	1475543.	672334.	1546978.
1975.		74797.	1484646.	702090.	1882604.
1976.		119466.	2336427.	1280445.	3028065.
1977.		226017.	3019334.	1741244.	3544411.
1978.		340711.	3783594.	2587115.	4536069.
1979.		531780.	4814710.	3101478.	4980232.

資料：韓銀，「경제통계년보」

## 韓國의 工業化와 輸出構造의 轉換

21

부표 2. 화학품 수출액

(단위 : 1,000달러)

1962~1979 INPUT DATA

## TOTAL SITC Code

		51	53	54	55	56	58
1962.	990.	838.	1.	49.	99.	1.	4.
1963.	904.	729.	13.	53.	57.	1.	5.
1964.	630.	327.	5.	88.	190.	1.	19.
1965.	380.	249.	6.	56.	34.	1.	12.
1966.	714.	541.	19.	65.	4.	1.	80.
1967.	2359.	422.	116.	149.	28.	1.	1.
1968.	3116.	540.	84.	165.	8.	1.	220.
1969.	9754.	770.	43.	1042.	24.	1.	1368.
1970.	11413.	1576.	37.	1365.	169.	1.	1825.
1971.	14867.	1825.	195.	2122.	280.	1.	1909.
1972.	36079.	13728.	1478.	2517.	525.	1.	5339.
1973.	48514.	20126.	3138.	4648.	1018.	1.	11901.
1974.	91833.	62520.	3578.	6278.	1539.	1.	13261.
7195.	74797.	41216.	2652.	9692.	2238.	30.	8780.
1976.	119466.	69098.	5556.	9109.	4082.	11533.	14178.
1977.	226017.	105258.	8944.	11299.	3961.	71214.	17664.
1978.	340711.	103049.	13259.	13034.	4414.	162110.	34971.
1979.	531780.	185669.	21382.	17878.	6472.	222592.	54068.

資料 : 부표 1과同一

부표 3. 원료별 제품 수출액

(단위 : 1,000달러)

1962~1979 INPUT DATA

## TOTAL SITC code

		61	62	63	64	65	66	67	68	69
1962.	6177.	2.	76.	2303.	27.	2218.	116.	587.	253.	593.
1963.	28115.	1.	511.	6341.	67.	7803.	878.	11712.	295.	506.
1964.	41310.	7.	907.	11503.	77.	19635.	1949.	4510.	2860.	862.
1965.	66414.	24.	1041.	18227.	164.	26336.	2761.	12747.	2944.	2169.
1966.	84176.	74.	1461.	30642.	1070.	34476.	1614.	8103.	2546.	4191.
1967.	101382.	140.	2044.	36626.	1830.	49039.	1000.	1948.	1780.	6976.
1968.	143599.	46.	2547.	65919.	572.	61233.	858.	1199.	1526.	9699.
1969.	173826.	215.	2656.	80480.	128.	65700.	5168.	4875.	4845.	9758.
1970.	220887.	429.	3704.	93484.	419.	84943.	6509.	13392.	5839.	12167.
1971.	328356.	1094.	4775.	128923.	562.	137834.	13586.	24395.	3249.	13938.
1972.	514236.	4204.	11333.	170438.	6484.	176604.	24267.	92836.	5968.	22134.
1973.	1102937.	6710.	20872.	305162.	29050.	435227.	46774.	188886.	7423.	62833.
1974.	1475543.	10822.	66828.	199400.	39563.	492586.	84831.	450296.	11195.	120022.
1975.	1484646.	10061.	90893.	227597.	36756.	648922.	106832.	231473.	8054.	124058.
1976.	2336455.	17312.	139304.	365663.	63641.	954356.	182447.	368846.	17540.	227345.
1977.	3019334.	19839.	160048.	423688.	72197.	1081700.	268411.	392167.	32546.	568738.
1978.	3783594.	44998.	226470.	457426.	99585.	1533273.	278613.	576792.	41884.	524554.
1979.	4814710.	36515.	340605.	497941.	85533.	1814546.	282499.	1101638.	47936.	607568.

資料 : 부표 1과同一

부표 4. 기계 및 준반기계 위출액

(단위 : 1,000달러)

1962~1979 INPUT DATA

TOTAL SITC code

		71	72	73
1962.	1446.	298.	106.	1042.
1963.	4067.	1094.	732.	2240.
1964.	2204.	462.	1021.	721.
1965.	5501.	2497.	1909.	1095.
1966.	9555.	3653.	5098.	803.
1967.	14185.	4006.	7364.	2814.
1968.	24464.	4161.	18933.	1370.
1969.	53219.	8893.	36687.	7639.
1970.	6b469.	8388.	41874.	9207.
1971.	87441.	12037.	68486.	6919.
1972.	171647.	32190.	125150.	14307.
1973.	395903.	59349.	312512.	24042.
1974.	672334.	76979.	474213.	121142.
1975.	702090.	76792.	441619.	183669.
1976.	1280445.	129215.	805878.	342286.
1977.	1741244.	144739.	925222.	674282.
1978.	2587115.	217435.	1245705.	1123974.
1979.	3101478.	319361.	1684491.	1097626.

資料 : 부표 1과同一

부표 5. 잡제품 수출액

(단위 : 1,000달러)

1962~1979 INPUT DATA

TOTAL SITC code

		81	82	83	84	85	86	89
1962.	1954.	2.	47.	1.	1119.	238.	93.	454.
1963.	6401.	20.	15.	2.	4644.	738.	88.	899.
1964.	13197.	11.	57.	6.	6614.	879.	666.	4966.
1965.	34487.	195.	30.	50.	20713.	4151.	413.	8937.
1966.	59197.	392.	68.	417.	33386.	5467.	542.	18925.
1967.	97239.	347.	135.	1209.	59208.	8139.	585.	27617.
1968.	167006.	71.	782.	827.	112232.	11044.	1116.	40934.
1969.	242345.	24.	900.	1228.	160770.	10476.	2131.	66819.
1970.	352497.	25.	1630.	2479.	213566.	17268.	3469.	114058.
1971.	445420.	69.	1843.	5442.	304265.	37436.	4546.	91819.
1972.	642757.	254.	4788.	9981.	442221.	55403.	8275.	121831.
1973.	1169865.	1320.	15117.	32093.	749863.	106371.	22105.	242996.
1974.	1546978.	1522.	12834.	50122.	956974.	179547.	51076.	294903.
1975.	1882604.	1017.	10813.	79450.	1148223.	191213.	68312.	383576.
1976.	3026270.	2408.	21632.	143008.	1845499.	398524.	137258.	479940.
1977.	3544411.	4274.	31147.	188724.	2061671.	487626.	145783.	625185.
1978.	4536122.	6399.	42521.	277150.	2574708.	686171.	192948.	757003.
1979.	4980232.	6752.	33655.	258130.	2849371.	782911.	222959.	880454.

資料 : 부표 1과同一